

# 미스터 방

채만식

주인과 나그네가 한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方),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白) \*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짜만 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 아, 어느 놈이 날 뭐라구 하며, 날 팔시혈 놈이 어딴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렵잖지, 어렵잖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팔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 도는 넉넉 뺄어진 코를 벌썹벌썹해 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주사 (남자의 성 뒤에 쓰여) 그를 높여 이르는 말.

돈짜 엽전의 크기.

흰말 '흰소리'의 방언.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내 참, 이래 배두, 응, 동양 삼국 물 다 먹어 본 방삼(方三)복이우. 청얼(淸語) 못허나, 일얼 못허나, 영어야 뭐 말할 것두 없구…….”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의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입넨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팔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별안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두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쥬. 죄선 사람은 안직두 멀었어.”

“멀구말구. 아직두 멀었지.”

취 \*상호의 대추씨만 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 수염 백 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아, 백상두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리셔. 백상 주량을 다아 아는데. 만난 진 오랐어두.”

“다아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에 참 몇이시지?”

“갑술생 마흔여덟 아닌가!”

“그럼 나보담 열한 살 위시군. 그래두 백상은 안 늙으신 심야. 허허 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선 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

백 주사는 혼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 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꽤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십 년 장이면 절하고 뵈어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각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酒草)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뺨끔뺨끔 피워, 이런 꽤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삼 대조가 진사를 하였고(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오 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칠 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십이 촌이 xx군수요, 그 십이 촌의 아들이 만주국 xx현 xx촌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 하던 백 부장 — \*훈팔등에, xx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 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 주사가 아닌가.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

무심중 아무런 생각이 없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

상호(相好) 얼굴의 생김 모양.

보비위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줌. 또는 그런 비위.

조백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향리(鄉里) 시골의 마을.

주초 술과 담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연갑 어떤 범위에 속하는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주로 성인에 대하여 이른다.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훈팔등 일제 훈장 중 하나.

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런 백 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금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녔다. 그 아버지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지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찜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공공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코빼뜰이 삼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역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담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떠난 지 칠팔 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짝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삼 년 만에 펄쩍 고향엘 돌아왔다. 십여 년을, 저의 말마따나 동양 삼국 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이 때가 벅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 다린 무명 고의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버지와 젊은 \*가속이 \*빠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일 년 번둥거리고 놀더니, 적이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찢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밀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둣방엘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헤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둣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꺾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북판의 한길에 가 앉아 신기료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청국으로, 십여 년 타국 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짚신 장수, 자식은 구두 깎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든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生貨)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해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 주고 징 박아 주고 닦아 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코빼뜰이 삼복이었다.

‘흥,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안 놈.’

백 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

근지 자라 온 환경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토 해마다 일정한 양의 벼를 주인에게 세(稅)로 바치고 부치는 논밭.

조석 날마다 일정한 때에 밥을 먹는 일. 또는 그 밥.

가속(家屬) ‘아내’의 낮춤말.

빠품 뼈가 훑 만큼 들이는 품.

회심 마음을 돌이켜 먹음.

신기료 현 신을 꿰매어 고치는 것.

생화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해어지다 닳아서 떨어지다.

선영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당엘 들었던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 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 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빼뿔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 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충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석 서로 껴 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물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물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웁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든 냈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젠 다 어디루 가 뒤했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귀작 어깨에 멘 채 활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기광 극성스레 마구 날뛰는 행동이나 기세.

명당 바람이 나다 조상의 무덤을 잘 쓴 덕에 자손이 훌륭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못 '다만'의 방언(전남).

도가 동업자들이 모여서 계나 장사에 대한 의논을 하는 집.

그러나 슬플진저, 땀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도 이불이며 헌 옷가지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백 원을 서푼 변으로 취해 오게 하였다.

그 돈 백 원을 가지고 삼복은 혼한 냉마전으로 가서, 백 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에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 신은 것을 이다음 창갈이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닳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느지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써 꺾쩍 멘 신기료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 마악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 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 대루 대요.”

“이게 별안간 미쳤나?”

“요 막난아, 반해 가지군 이력허구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야? 웅?”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구 가지, 거전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단, 내 인제 돈 벌문, 증말 첩 얻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 주리땀 앵길 년이…….”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 들고 \*기물스러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치? 하우 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씨고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 원.”

하여 주었다.

꽤 돌려다보더니,

“오, 켄 유 스피크?”

하면서 사뭇 그러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장수 코빼뿔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

일습 옷, 그릇, 기구 따위의 한 벌 또는 그 전부.

기물스럽다 ‘귀물스럽다’의 방언. 귀중한 물건인 듯하다.



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십오 불(이백사십 원) 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번은 탐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투 사우전드 이얼스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판스 앤드 싱, 위드 뎀썬.”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꽤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쩌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노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가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 대답하였다.

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오 원에 한 장 사 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마네 집의 것을 이 원에 사 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

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옮겨오기는 S 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시방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앞은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요,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요,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쯤 그다지 관심할 줄을 아직은 몰랐다.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다음엔 \*침모를 두었다. 그다음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으레 짬뽀이 뿌듯한 봉투가 들었곤 하였다.

미스터 방의, 신기료장수 코빼뜰이 삼복이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다.

\*

주인 미스터 방이 백주사의 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 들다가,  
“오이, 기미꼬.”

추월색 1912년 나온 최찬식의 신소설.

노대 이 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뜰 바닥이나 마루.

침모 남의 집에 매여 바느질을 맡아 하고 일정한 품삯을 받는 여자.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꾸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증중 있지?”

“.....”

층계 밟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넌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눈이 나오고, 분 바른 얼굴이 나오고, 윌피스 입은 커다란 젖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  
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MP)  
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구, 살 놈이 죽구 허는 줄을 모르구  
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딱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  
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  
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  
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  
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  
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  
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통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켤짝

증중 일본식으로 빚어 만든 맑은술.

퍼머넌트 파마. 머리를 전열기나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구불구불하게 하거나 곧게 펴 그런 모양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한 머리.

소절수 수표. 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  
는 유가 증권.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지카다비 일본인들이 주로 신는 신발 종류 중 하나.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  
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  
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  
금을 하고 하엿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  
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  
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  
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  
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땀던 신사 양  
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  
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  
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  
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빼뜰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  
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  
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일랑 목을 찢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두록 두들겨 주구. 꿇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의표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진소위 정말 그야말로.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 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니다, 쑥발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짹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뻔어진 양치물은 쿼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 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착르르.

“유 데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 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세간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백골난망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기급하다 기급(騎劫)하다.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다.